

# 김산호 회화극본

## The story of Holy Buddha

# 부처님

제4화 사문유관상 ㉔



**그** 날 이후 태자는 태자궁의 벽을 향하여 앉은 채로 무엇인지 깊은 사색에 골몰히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 성문을 나서면서 만났던 노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싯다르타 태자가 한동안 태자궁에 깊이 숨어 앉아 생(生)과 늙음(老)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깊은 번뇌에 빠져들었으나 아직까지의 지혜로는 아무런 해답도 얻을 수 없었음이 분명했다. 그토록 불안하게 주시했던 싯도다나 라자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태자의 마음속에 고뇌의 파도가 일고 있음을 부왕인 싯도다나 라자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다.

더 이상 방황하는 태자를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싯도다나 라자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 가장 뛰어난 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온갖 설법을 다 동원하여 태자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였다. 대왕의 명을 받은 노 대신들은 서로 교대해 가며 태자에게 가서 세상의 모든 예와 이치를 들고 이 세상에는 태자가 첫번째의 출공에서 경험했던 충격보다 더 밝고 즐거운 일들로 충만해 있음을 증언하며 태자의 번뇌가 부질없는 것임을 설득해 갔다.

지금까지 화려한 궁중생활만 해오고 바깥세상의 경력이 부족한 태자는 결국 박식한 노대신들의 끈덕진 설득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판단력에 큰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얼** 마간의 시간이 더 흐르자 태자의 마음속에 차츰 번뇌의 충격도 있어갔고, 또 신하들의 간곡한 권유도 있어서 다시한번 출성(出城)하여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기로 결심했다.

‘또다시 지난번처럼 태자를 당황하게 만들면 큰 일이다’고 생각한 부왕은 미리부터 신하들을 풀어 태자가 행차할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한 후 집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아 태자로 하여금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성밖으로 나간 싯다르타 태자는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호흡하며 역시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즐거움 속에 빠져들었다.

“아, 시원한 바람 그리고 상쾌한 공기, 사방에서 불어오는 향긋한 꽃의 향기, 과연 세상은 아름답고 향기롭도다! 내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성문을 나서길 정말 잘했도다!”

이때의 모습을 노래한 기록이 있으니 바로 유명한 붓다차리타(Buddha-Carita)가 그것이다. 그 한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성밖에는 울창한 동산 숲이 있고, 흐르는 강물과 맑고 시원한 숲이 있었다. 온갖 꽃들과 과실 나무들이 줄을 이어 늘어선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고, 온갖 이상하고 기이한 새들이 그 속을 훨훨 날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연못과 내를 뒤덮은 네 종류의 꽃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며 기묘한 향기를 내뿜고, 기녀들의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태자에게 바친다.

태자는 그 아름다운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동산 숲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니 그 동산 숲에 뛰어들어 놀아보고 깊은 생각만이 간절하다. 그것은 마치 묶여있는 코끼리가 항상 넓은 들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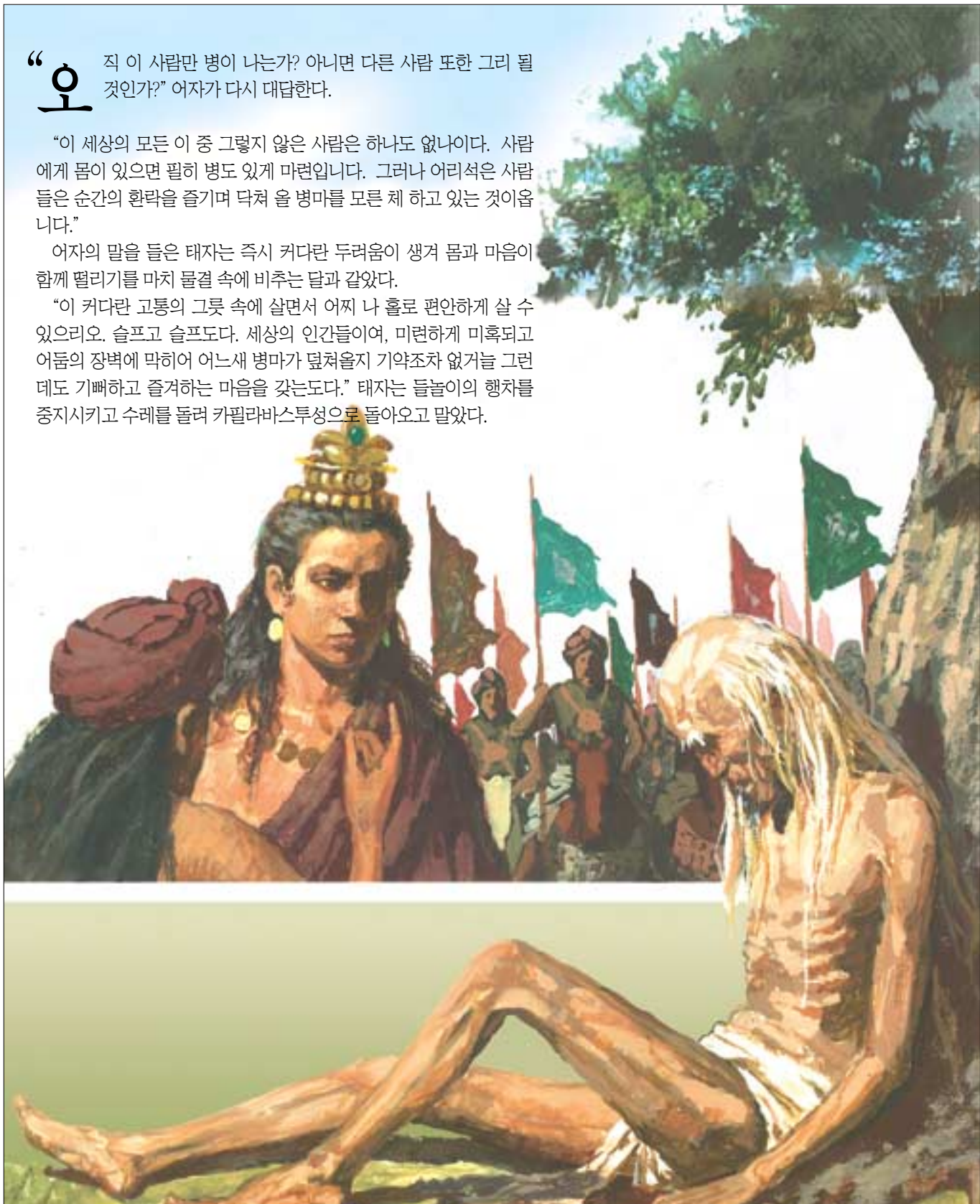
그런데 또다른 불전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때 정거천(淨居天)의 천인(天人)은 태자가 세상의 한쪽 면만 보며 즐기고 다른 한쪽 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격정하였다. 이에 정거천 천인은 갑자기 태자의 눈앞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병자(病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비록 싯도다나 라자가 며칠 전부터 수많은 병사들을 풀어 모든 집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으나 정거천 천인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어찌 막을 수 있었을 것인가.

갑자기 태자의 눈앞에 한 병든 노인이 보였으니 몸은 바짝 마르고 배는 퉁퉁 부었으며 숨소리는 길게 헐떡거린다. 팔과 다리 또한 뒤틀러 바짝 말랐으며 슬프게 우는데 고통의 신음 소리 뿐이었다. 크게 놀란 태자는 어자(御者)에게 물었다. “이것은 또 어찌된 사람인가?”

어자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병자(病者)로소이다. 흙과 물과 바람(地水火風)이 모두 함께 뒤섞여 혼란하니 몸의 기가 빠져 나가고 살은 여위어 고통을 이길 수 없으므로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자로소이다.”

이 말을 들은 태자는 곧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오** 직 이 사람만 병이 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또한 그리 될 것인가?” 어자가 다시 대답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중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에게 몸이 있으면 필히 병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순간의 환락을 즐기며 닥쳐 올 병마를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입니다.”

어자의 말을 들은 태자는 즉시 커다란 두려움이 생겨 몸과 마음이 함께 떨리기를 마치 물결 속에 비추는 달과 같았다.

“이 커다란 고통의 그릇 속에 살면서 어찌 나 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요. 슬프고 슬프도다. 세상의 인간들이여, 미련하게 미혹되고 어둠의 장벽에 막혀 어는세 병마가 덮쳐올지 기약조차 없거늘 그런 데도 기뻐하고 즐겨하는 마음을 갖는도다.” 태자는 들놀이의 행차를 중지시키고 수레를 돌려 카필라바스투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공** 깊숙이 숨어버린 태자는 깊은 시름에 잠겨 사람이 늙어 흥취한 모습으로 변해 버리는 것과 몸에 병을 얻어 고통속에 몸부림치며 생을 보존하려는 노인의 슬픈 모습을 상기하며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장차 이 나라의 제왕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천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아시타 선인이 예언했다지. 그러나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 고통에 울부짖는 힘없고 가엾은 나의 백성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줄 수도 없는 무능한 인간 아닌가. 나같은 것이 무슨 천륜성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 선인이 너무 늙어서 망명되게 예언을 했었겠지.”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며 깊은 고뇌의 수렁에서 헤어나 줄 몰랐던 태자는 이제는 미처버린 것만 같은 고통을 곱씹으며 성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우연히 성의 서쪽 문 성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싯다르타 태자가 도성(都城)의 서쪽 문 성루에 올라 깊은 시름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성문을 빠져 나가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흠, 저것은 죽은 사람이 아닌가? 죽는다는 것이 저와 같이 슬픈 일인 것인가? 도대체 죽음이란 또 무엇인가? 나는

아직까지 병들고 늙어가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지금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저들의 고통은 또한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서 자연의 조화로 태어났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여 자연으로 되돌아 가버리는 윤회의 반복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토록 애통해 하는 것일까?”

태자는 자기도 모르게 성문을 빠져나가 그 상여의 슬픈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

**상** 여의 행렬은 얼마후 반강가(Bangangal)강에 도착하였다. 강가에는 다비(火葬)만 전문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시체의 머리는 강쪽으로 향하고 하안 옷이 입혀지더니 이내 장작더미에 올려 놓고 장작아래에 쌓아 놓은 질뒀미에 불이 붙어졌다. 순식간에 불길은 타오르며 시체의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했다.

시체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물)이어서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그것은 곧 비에 섞여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겠지... 태자는 깊은 생각에 잠기면서 이 다비예식을 끝까지 보았다.

